

 <b>인천광역시</b>	<b>보도자료</b>		 <b>인천의 꿈*</b> <b>대한민국의 미래</b>
	배포일자	2022년 10월 20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보훈과	담당자	• 보훈지원팀장 이상태 ☎440-2971 • 담당자 안준열 ☎440-297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통합보훈복지회관’ 건립에 속도…2025년 준공**  
**- 2023년 하반기 실시설계 착수, 2024년 착공 -**  
**- 34년 지난 노후 건물 신축… 13개 보훈단체 한데 모으고, 수익시설 배치 등 중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훈가족들에 질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민선8기 주요공약사항인 ‘인천통합보훈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보훈회관은 준공된 지 34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공간이 협소해 현재 13개 보훈단체 중 3개 단체를 제외한 10개 단체가 관내 공공·임대건물에 흩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내달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수행자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건립부지와 규모, 기존 보훈회관 등의 활용방안, 준공건물의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저층에는 수익시설을 유치하고 회원들의 편의제공 위해 체력단련실, 복지공간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2023년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해 2025년 최종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충진 인천시 복지국장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사전행정절차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최고의 예우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민선6기 시절 인천을 ‘호국보훈의 도시’로 선포한 바 있다. 또한 민선8기 시장 취임 후 13개 보훈단체장들과 오찬 및 보훈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지부장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통합보훈복지회관 신규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복지국 기자간담회 관련 사진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